

# 광주 집값 2년만에 올랐다

### 작년 평균 2.0% 상승 ... 전남지역도 4.0% ↑ 광주 광산구 3.0%·순천 6.3% 지역내 최고

지난해 광주지역의 집값이 2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수도권과의 상승률 격차도 크게 줄었다. 아파트 신규 입주 증가와 서울의 집값 둔화 등 주택 시장의 변화 때문이다.

4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의 아파트가격은 1년 전인 2007년에 비해 평균 2.0%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2.3%)을 소폭 밑도는 것이지만, 집값이 하락한 2007년(-0.1%)에 비해선 2.1%포인트 상승했다.

지방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였다. 광산구와 북구를 중심으로 고가의 신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된 것이 주된 집값 상승 이유다.

지역별로는 광산구가 3.0%로 가장 많이 올랐다. 다음으로 ▲북구(1.9%) ▲서구(1.9%) ▲남구(1.2%) ▲동구(0.9%) 순이었다.

서울과의 집값 상승률 격차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서울은 아파트값이 평균 3.2% 올라 광주에 비해 집값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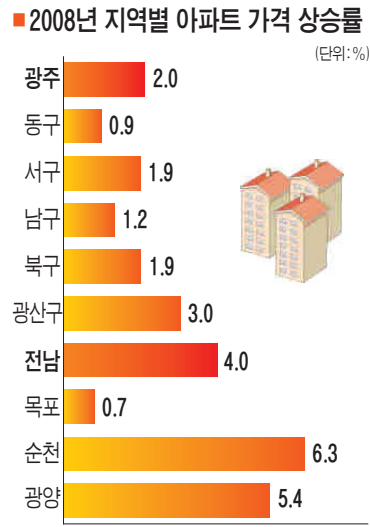
승률이 1.2%포인트 높았다.

광주와 서울간 집값 상승률의 격차가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6.5배, 3.6배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별 집값 양극화가 서서히 해소되고 있는 셈이다.

전남도 지난해 집값이 4.0% 올라 2007년(1.9%)에 비해 오히려 크게 확대됐다. 이같은 상승률은 전국 평균(2.3%)은 물론, 서울의 집값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여수엑스포 유치와 아파트 신규 입주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순천과 광양의 집값이 각각 6.3%, 5.4% 상승했다.

반면 서울은 지난해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떨어져 2004년(-2.1%)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 빅3'인 강남구(-4.7%), 서초구(-4.4%), 송파구(-3.1%) 등의 집값이 일제히 하락했다. 또 서울 양천구(-1.0%)와 안양 동안구(-4.



5%) 등도 동반하락하면서 이른바 '버블세븐'의 집값이 모두 떨어졌다.

경기는 5대 신도시와 과천 등의 집값 약세로 1.0% 상승에 그쳤으며, 수도권 평균 집값 상승률도 2.9%에 머물렀다. 지방 광역시의 경우 부산과 대전의 아파트값이 각각 4.1%, 0.6% 올랐다. 반면 대구와 울산은 각각 3.1%, 0.8% 떨어져 주택시장 침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전남 경제 살리겠습니다” 광주전남경영지총협회는 2일 오후 광주무등파크호텔에서 지역 각급기관장과 경영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갖은 뒤 박광대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새해 시·도정 운영방향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금융 인턴사원 6,600명 채용

금융회사들이 올해 인턴사원으로 6천600여 명을 채용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공기업이 주로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인턴사원을 뽑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공기업은 전체 정원의 4.1%인 700여 명을 채용하고 민간 금융회사는 5천900여 명을 뽑는다. 은행 3천990명, 보험사 910명, 증권사 740명, 저축은행 등 나머지 제2금융권 300명이다.

대부분 1년 이내의 단기 채용이지만 일부 금융회사는 근무 성격이 우수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 새 얼굴 “조선산업 등 中企 지원 최우선”

김 광 광주지방국세청장



“광주·전남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기반이 취약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기업들을 돕는 세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2일 취임한 김 광(54)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조선산업, 광산업 등 지역전략산업과 향토기업, 중소기업 등이 세금으로 인한 경영 애로를 겪는 일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기업현장의 애로를 파악한 뒤, 장수유예·납기연장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또 “초일류 국제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조직구성원간 건전하고 끊임없는 경쟁이 중요하다”며 “열심히 일한 사

람이 예우 받는 공정한 평가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 출신인 김 청장은 광주이고교(34기)를 나와 1984년 사무관으로 임용된 뒤 광주세무서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서울반포세무서 소득세 2과장, 중부청 감사관, 해남세무서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국제청 소비세과장, 중부청 조사 2과장과 1과장, 서울청 조사 2과장을 거쳐 광주청장 발령 전까지 국제청 법인납세국장 등을 맡아왔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 “상반기 집값 7~8% 하락”

### 국민은행연 전방 ... 주택 인·허가 물량도 급감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가격이 7~8%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은행연구소는 4일 ‘주택시장 리뷰 겨울호’에서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침체와 경기 위축으로 올해도 주택시장이 큰 폭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외환위기 당시 급격한

금융 및 실물경제 충격으로 13개월 동안 전국 주택가격이 13.2% 하락했지만 현재 주택시장 침체는 약 10~12개월 동안 지속하고 가격 하락 폭은 10%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미 지난해 4분기에 1.2%가 하락한 만큼 올 상반기에 추가로 7~8%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하반기부터는 관망세에 있던 실수요자들의 시장 참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올해도 주택 인·허가와 입주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3분기까지 주택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2%,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50.7%가 각각 감소했는데 이미 쌓인 미분양으로 올해도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로또복권 (제318회)			팝콘복권 (제141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2 17 19 20 34 45	21		1	5억	3주 763089
			2	1억	2주 546112
			3	1천만	4주 643069
			4	1백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5	50만	각조 10483
					각조 0060
					각조 46
					각조 47
					각조 33
					각조 4
					각조 5
					각조 0

##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국제보청기

본점 (082) 227-9940

총장점 (082) 227-9970

## 광주보건대학 신입생모집

2009학년도 1학기 2학기

광주보건대학에서는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1. 모집학과: 간호학과, 보건행정학과, 의료영상영상학과, 의료영상영상학과, 의료영상영상학과

2. 모집인원: 200명

3. 모집대상: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

4. 입학시험: 1월 10일(토) 9시

5. 입학처: 광주보건대학 입학처 (082) 227-9940